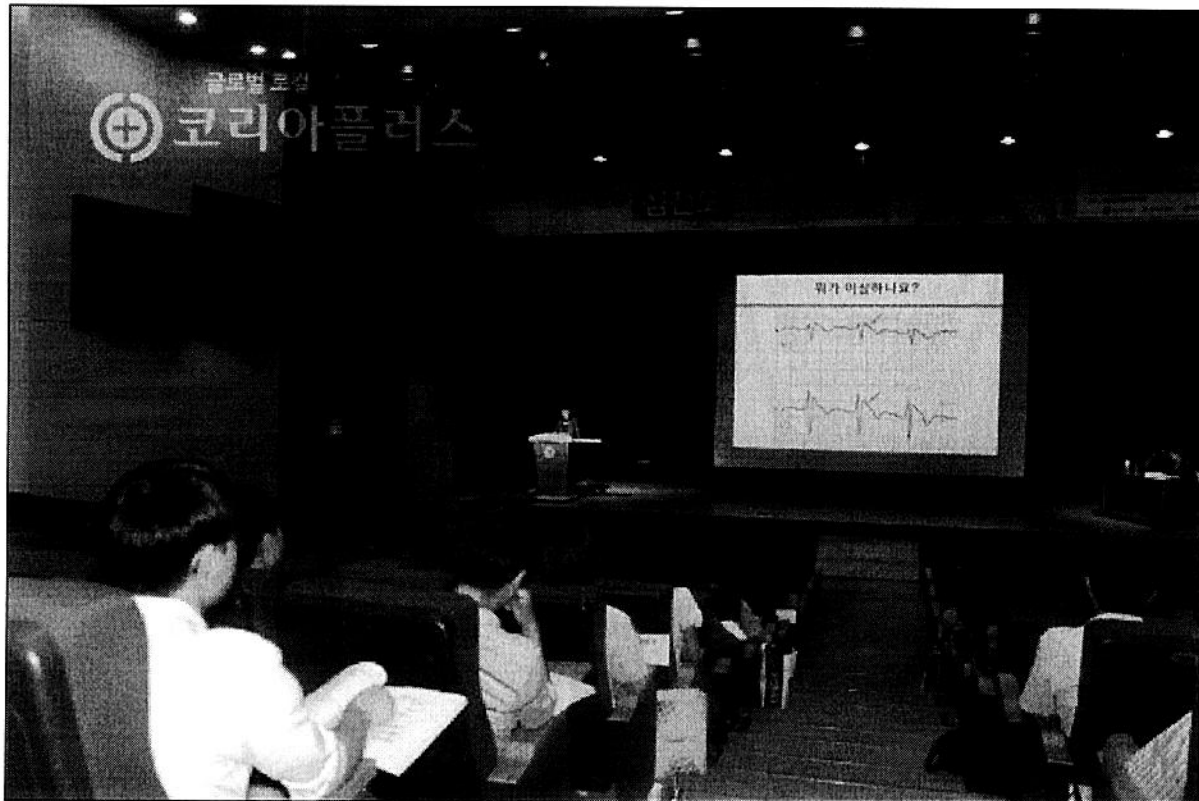


홈 > 뉴스 > 코리아플러스 > 교육과학 | 건강

원광대학교병원 제6회 원광심전도 심포지엄 개최

2016년 06월 21일 (화) 15:01:00

이한국 기자 ✉ qoren219@nate.com



【의학=코리아플러스】 이한국 기자 = 지난 18일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1층 아트스페이스홀에서 원광대학교병원이 개최한 제6회 원광 심전도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으로 6회째를 맞이한 본 심포지엄은 권역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심전도의 기본에서부터 부정맥에 이르기까지 심전도에 대한 최신 지견들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심포지엄 1부에서는 고신의대 차태준 교수(심전도를 통한 심장전기활동의 이해), 전남의대 윤남식 교수(이상한 모양의 심전도들-심전도 형태 이상), 계명의대 박형섭 교수(흉통환자를 심전도로 진단하기)의 연제 발표에 이어 제2부에서는 충남의대 김준형 교수(정상 QRS파 빈맥), 장성원 카톨릭의대(비정상 QRS파 빈맥), 성균관의대 박승정 교수(서맥성 부정맥과 심박동기)등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심전도 진료에 있어 다양한 내용들에 관하여 연제 발표를 했다.

마지막 3부에서 전남의대 고정석, 이기홍, 임지현, 정래영, 김연경 교수가 “흥미로운 심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벌이며 이날 심포지엄의 대미를 작성했다.

심포지엄을 주최 한 원광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측은 매해 열리는 심전도에 관한 심포지엄이

의료인들간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역민과 전북도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단, 치료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했다.

© 코리아플러스(<http://www.kplu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기사 인쇄

원광대병원, 제6회 원광심전도 심포지엄 개최

강찬우 ehealth@ehealthnews.net

원광대학교병원은 최근 원광대 60주년 기념관 1층 아트스페이스홀에서 '제6회 원광 심전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권역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심전도의 기본에서부터 부정맥에 이르기까지 심전도에 대한 최신 지견들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심포지엄 1부에서는 △고신의대 차태준 교수(심전도를 통한 심장전기활동의 이해) △전남의대 윤남식 교수(이상한 모양의 심전도들-심전도 형태 이상) △계명의대 박형섭 교수(흉통환자를 심전도로 진단하기)의 연제 발표가 이어졌다.

제2부에서는 △충남의대 김준형 교수(정상 QRS파 빈맥) △카톨릭의대 장성원 교수(비정상 QRS파 빈맥) △성균관의대 박승정 교수(서맥성 부정맥과 심박동기)등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심전도 진료에 있어 다양한 내용들에 관하여 연제 발표를 했다.

이어 마지막 3부에서 전남의대 고정석, 이기홍, 임지현, 정래영, 김연경 교수가 '흥미로운 심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벌이며 이날 심포지엄의 대미를 작성했다.

원광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계자는 "매해 열리는 심전도에 관한 심포지엄이 의료인들간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역민과 전북도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단, 치료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21 14:06

Copyright(c) E-헬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E-mail. webmaster@ehealthnews.net

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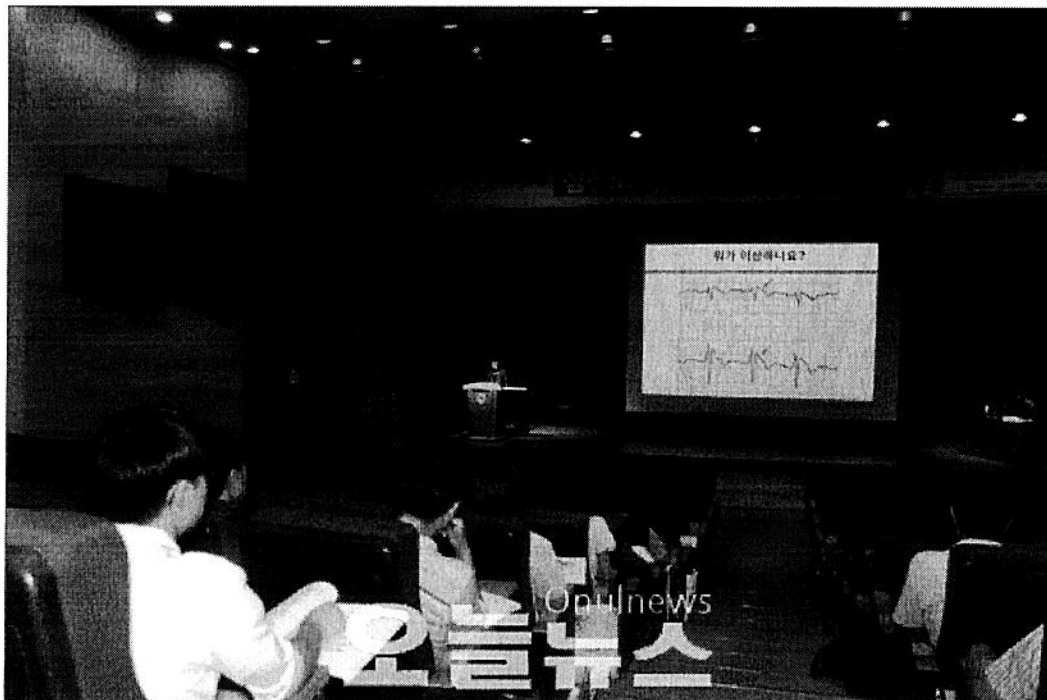
원광대학교병원 제6회 원광심전도 심포지엄 개최

기사입력시간 : 2016/06/21 [15:01:00]

이한국

[오늘뉴스=이한국 기자] 지난 18일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1층 아트스페이스홀에서 원광대학교병원이 개최한 제6회 원광 심전도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으로 6회째를 맞이한 본 심포지엄은 권역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심전도의 기본에서부터 부정맥에 이르기까지 심전도에 대한 최신 지견들을 공유하는 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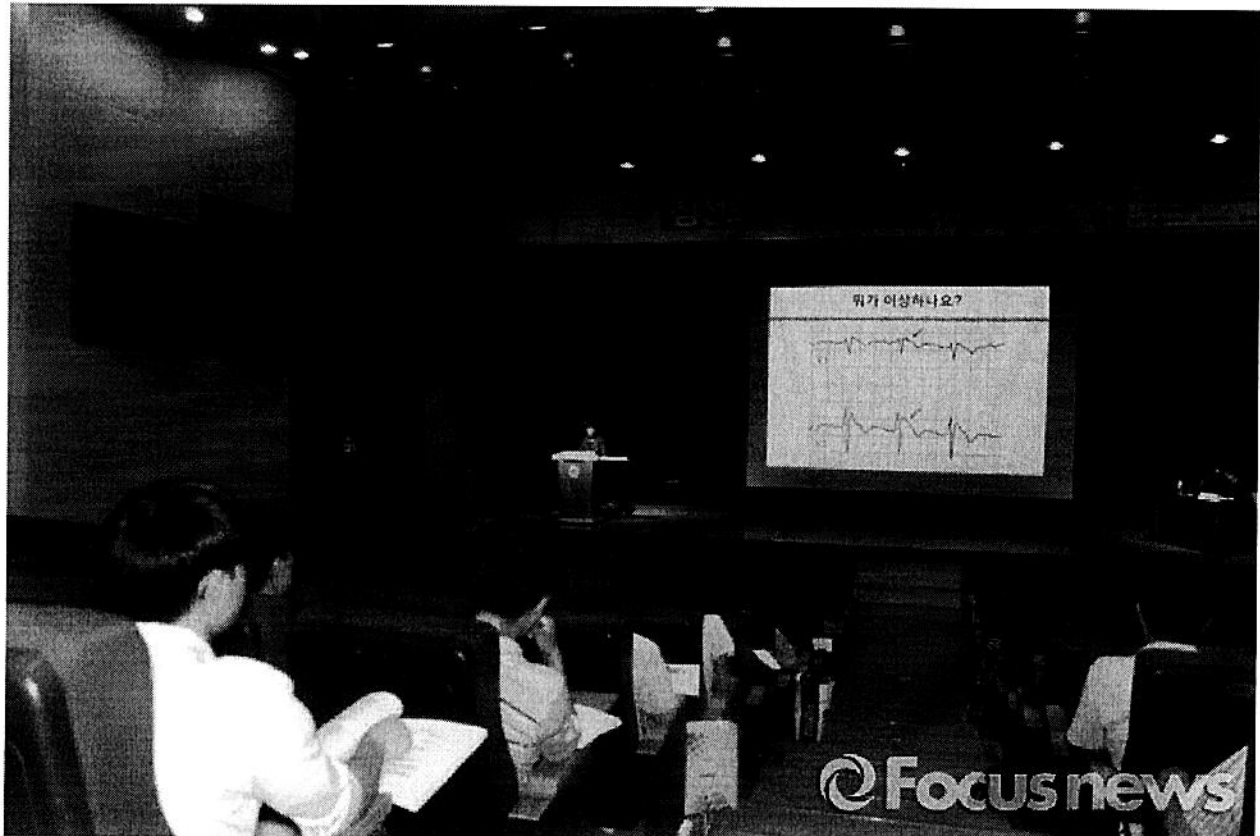
이날 심포지엄 1부에서는 고신의대 차태준 교수(심전도를 통한 심장전기활동의 이해), 전남의대 윤남식 교수(이상한 모양의 심전도들-심전도 형태 이상), 계명의대 박형섭 교수(흉통환자를 심전도로 진단하기)의 연제 발표에 이어 제2부에서는 충남의대 김준형 교수(정상 QRS파 빈맥), 장성원 카톨릭의대(비정상 QRS파 빈맥), 성균관의대 박승정 교수(서맥성 부정맥과 심박동기) 등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심전도 진료에 있어 다양한 내용들에 관하여 연제 발표를 했다.

마지막 3부에서 전남의대 고정석, 이기훈, 임지현, 정래영, 김연경 교수가 “흥미로운 심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벌이며 이날 심포지엄의 대미를 작성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원광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측은 매해 열리는 심전도에 관한 심포지엄이 의료인들간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역민과 전북도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단, 치료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했다.

원광대병원, '제6회 원광심전도 심포지엄' 개최

등록 : 2016-06-21 13:06 수정 : 2016-06-21 13:06



(익산=포커스뉴스)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은 21일 원광대60주년기념관 1층 아트스페이스홀에서 '제6회 원광 심전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권역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심전도의 기본에서부터 부정맥에 이르기까지 심전도에 대한 최신 지견들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1부에서는 고신의대 차태준 교수(심전도를 통한 심장 전기 활동의 이해), 전남의대 윤남식 교수(이상한 모양의 심전도들-심전도 형태 이상), 계명의대 박형섭 교수(흉통환자를 심전도로 진단하기)의 연제 발표가 진행됐다.

제2부에서는 충남의대 김준형 교수, 장성원 카톨릭의대, 성균관의대 박승정 교수 등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심전도 진료에 있어 다양한 내용들에 관한 연제 발표를 했다.

마지막 3부에서 전남의대 고점석, 이기홍, 임지현, 정래영, 김연경 교수가 '흥미로운 심전도'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며 대미를 장식했다.

병원 관계자는 "매해 열리는 심전도 전반에 관한 심포지엄이 지역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단, 치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bule2737@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프린트](#)[취소](#)

의학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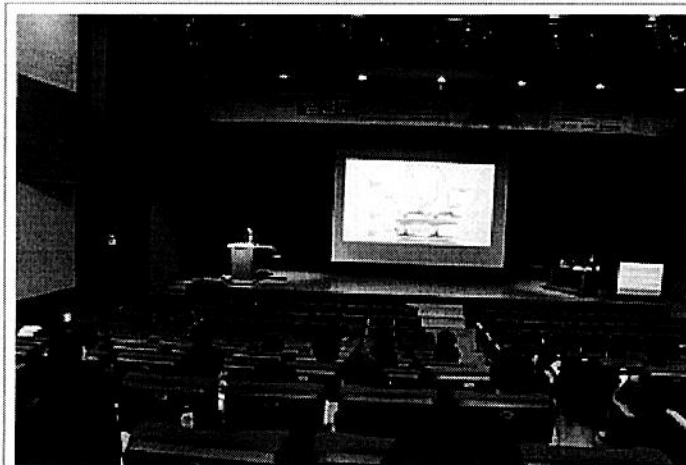
기사 입력시간 : 2016-06-21 오후 1:04:00

프린트

원광대병원, 심전도 심포지엄 개최

3부로 나눠 최신지견 공유 -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 이바지

원광대학교병원은 18일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1층 아트스페이스홀에서 제6회 원광 심전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원광대병원, 제6회 원광 심전도 심포지엄 개최

3부로 나눠 진행된 심포지엄은 권역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심전도의 기본에서부터 부정맥에 이르기까지 심전도에 대한 최신 지견들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심포지엄 1부에서는 고신의대 차태준 교수(심전도를 통한 심장전기활동의 이해), 전남의대 윤남식 교수(이상한 모양의 심전도들-심전도 형태 이상), 계명대의대 박형섭 교수(흉통환자를 심전도로 진단하기)의 연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제2부에서는 충남의대 김준형 교수(정상 QRS파 빈맥), 장성원 카톨릭의대(비정상 QRS파 빈맥), 성균관의대 박승정 교수(서맥성 부정

맥과 심박동기) 등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심전도 진료에 있어 다양한 내용들에 관해 발표했다.

마지막 3부에서 전남의대 고정석, 이기홍, 임지현, 정래영, 김연경 교수가 '흥미로운 심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벌이며 이날 심포지엄의 대미를 장식했다.

심포지엄을 주최 한 원광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측은 "매해 열리는 심전도에 관한 심포지엄이 의료인들간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역민과 전북도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단, 치료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원준 기자 chamedi7@bosa.co.kr

Copyright(c) 2001 (주)의학신문사.

[홈](#) > [뉴스](#) > [뉴스](#) > [병원](#)

원광대병원, 제6회 원광심전도 심포지엄 개최

2016년 06월 21일 (화) 12:03:48

박현 기자 ✉ hyun@kha.or.kr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1층 아트스페이스홀에서 개최한 제6회 원광 심전도 심포지엄이 성료됐다.

이번으로 6회째를 맞이한 본 심포지엄은 권역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심전도의 기본에서부터 부정맥에 이르기까지 심전도에 대한 최신지견들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날 심포지엄 1부에서는 고신의대 차태준 교수(심전도를 통한 심장 전기 활동의 이해), 전남의대 윤남식 교수(이상한 모양의 심전도들-심전도 형태 이상), 계명의대 박형섭 교수(흉통환자를 심전도로 진단하기)의 연제발표가 있었다.

제2부에서는 충남의대 김준형 교수(정상 QRS파 빈맥), 가톨릭의대 장성원 교수(비정상 QRS파 빈맥), 성균관의대 박승정 교수(서맥성 부정맥과 심박동기)등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심전도 진료에 있어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연제발표를 했다.

이어 마지막 3부에서 전남의대 고점석, 이기홍, 임지현, 정래영, 김연경 교수가 '흥미로운 심전도'라

는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이며 이날 심포지엄의 대미를 작성했다.

원광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측은 “매해 열리는 심전도 전반에 관한 심포지엄이 의료인들 간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뿐만 아니라 전북도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단, 치료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 창닫기

전민일보

2016년 06월 22일 수요일
015면 사람

원광대병원, 제6회 원광 심전도 심포지엄 개최

원광대학교병원이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아트스페이스홀에서 제6회 원광 심전도 심포지엄이 성료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권역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심전도의 기본에서부터 부정맥에 이르기까지 심전도에 대한 의견들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 1부에서는 차태준(고신대) 교수의 심전도를 통한 심장 전기 활동의 이해, 윤남식(전남대) 교수의 이상한 모양의 심전도들, 박형섭(계명대) 교수의 흉통환자를 심전도로 진단하기의 연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제2부에서는 김준형(충남대) 교수의 정상 QRS과 빈맥, 장성원(카톨릭대)교수의 비정상 QRS과 빈맥, 박승정(성균관대) 교수의 서맥성 부정맥과 심박동기 등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심전도 진료에 대해 연제 발표를 했다.

마지막 3부에서 전남대 고점석, 이기흥, 임지현, 정래영, 김연경 교수가 "흥미로운 심전도"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이며 이날 심포지엄의 대미를 장식했다.

원광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매년 열리는 심포지엄이 의료인들 간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뿐만 아니라 전북 도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단, 치료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고운영기자

전주일보

2016년 06월 22일 수요일
009면 지역

원광 심전도 심포지엄 최신 정보공유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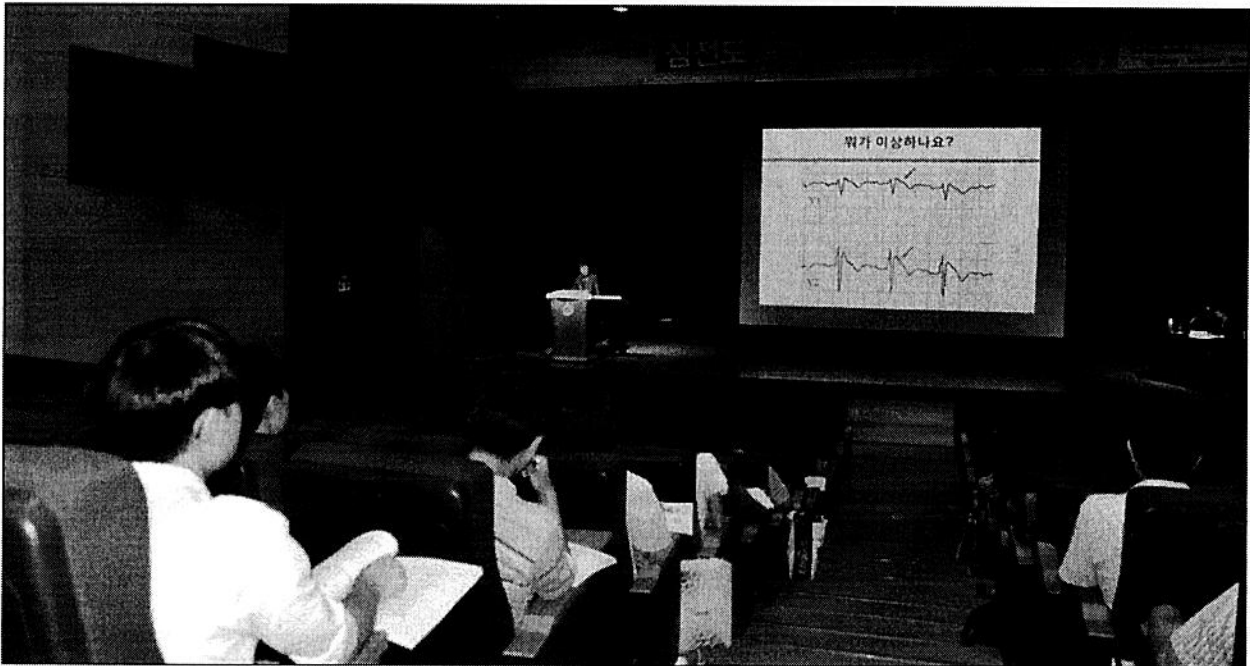
심전도 관련 최신 내용들을 공유하는 권역 내 의료인 대상 심전도 심포지엄이 원광대병원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21일 원광대병원(병원장 최두영)에 따르면 권역 내 의료인 대상 제6회 원광 심전도 심포지엄을 지난 18일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1층 아트스페이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전도 심포지엄은 권역 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심전도의 기본에서부터 부정맥에 이르기까지 심전도에 대한 최신 지견들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심포지엄 1부에서는 고신의대 차태준 교수(심전도를 통한 심장전기 활동의 이해), 전남의대 윤남식 교수(이상한 모양의 심전도들-심전도 형태 이상), 계명의대 박형섭 교수(흉통환자를 심전도로 진단하기)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또 제2부에서는 충남의대 김준형 교수(정상 QRS과 빈맥), 카톨릭의대 장성원 교수(비정상 QRS과 빈맥), 성균관의대 박승정 교수(서맥성 부정맥과 심박동기)등 국내 유수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나서 심전도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연제 발표했다.

심포지엄을 주최 한 원광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측은 "매해 열리는 심전도에 관한 심포지엄이 의료인들 간의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민과 전북도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단, 치료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소재완 기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은 '제6회 원광 심전도 심포지엄'을 원광대 60주년 기념관 1층 아트스페이스홀에서 개최했다.

‘제6회 원광 심전도 심포지엄’ 개최

원광대병원, 심전도 형태 등 최신 지견 공유

전북 원광대학교병원은 '제6회 원광 심전도 심포지엄'을 원광대 60주년 기념관 1층 아트스페이스홀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으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심포지엄은 권역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심전도의 기본에서부터 부정맥에 이르기까지 심전도에 대한 최신 지견들을 공유했다.

이날 심포지엄 1부에서는 고신의대 차태준 교수(심전도를 통한 심장

전기 활동의 이해), 전남의대 윤남식 교수(이상한 모양의 심전도들-심전도 형태 이상), 계명의대 박형섭 교수(흉통환자를 심전도로 진단하기)의 연제 발표가 이어졌다.

제2부에서는 충남의대 김준형 교수(정상 QRS과 빈맥), 장성원 카톨릭의대(비정상 QRS과 빈맥), 성균관의대 박승정 교수(서맥성 부정맥과 심박동기) 등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심전도 진료에 있

어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연제 발표했다.

이어 마지막 3부에서 전남의대 고점석, 이기홍, 임지현, 정래영, 김연경 교수가 '흥미로운 심전도'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원광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계자는 "매해 열리는 심전도 전반에 관한 심포지엄이 의료인들 간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뿐만 아니라 전북도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단, 치료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익산/김용균 기자
kyg1541@hanmail.net

심전도의 탐구,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제6회 원광심전도 심포지엄' 개최

2016/06/22 05:47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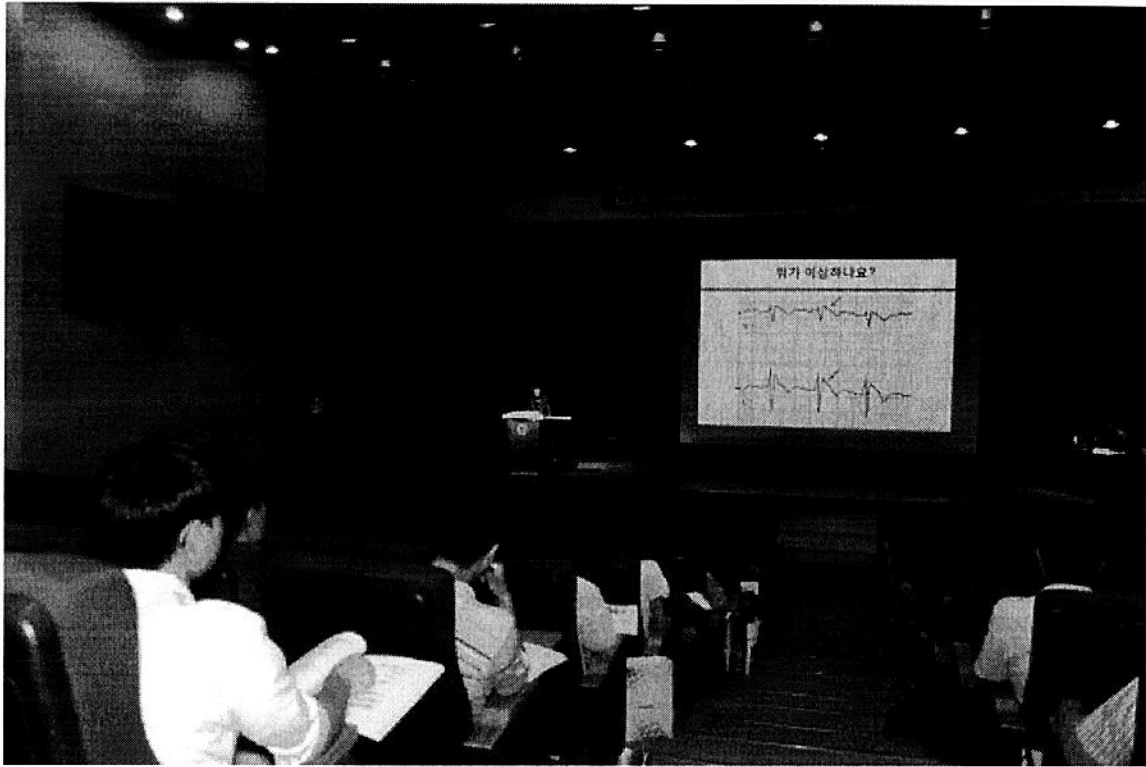


심전도의 탐구,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제6회 원광심전도 심포지엄' 개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1층 아트스페이스홀에서 개최한 제6회 원광 심전도 심포지엄이 성료 됐다.

이번으로 6회째를 맞이한 본 심포지엄은 권역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심전도의 기본에서부터 부정맥에 이르기까지 심전도에 대한 최신 지견들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날 심포지엄 1부에서는 고신의대 차태준 교수(심전도를 통한 심장 전기 활동의 이해), 전남의대 윤남식 교수(이상한 모양의 심전도들-심전도 형태 이상), 계명의대 박형섭 교수(흉통환자를 심전도로 진단하기)의 연제 발표에 이어

제2부에서는 충남의대 김준형 교수(정상 QRS파 빈맥), 장성원 카톨릭의대(비정상 QRS파 빈맥), 성균관의대 박승정 교수(서맥성 부정맥과 심박동기)등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심전도 진료에 있어 다양한 내용들에 관하여 연제 발표를 했다.

이어 마지막 3부에서 전남의대 고점석, 이기홍, 임지현, 정래영, 김연경 교수가 “흥미로운 심전도”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며 이날 심포지엄의 대미를 작성했다.

원광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측은 매해 열리는 심전도 전반에 관한 심포지엄이 의료인들 간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역뿐만 아니라 전북도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단, 치료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